



미 증시, 차익실현 및 고용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31 일(목) 미국 증시는 컨센에 부합한 7 월 PCE 물가,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 미국 기업들의 감원 증가 등 호재성 재료가 상존했으나, 지난 4 거래일 연속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1 일(금) 고용지표 경계심리 영향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5%, S&P500 -0.2%,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0.5%), 기술(+0.4%), 에너지(+0.2%) 등이 강세, 헬스케어(-1.2%), 유틸리티(-1.0%), 부동산(-0.8%)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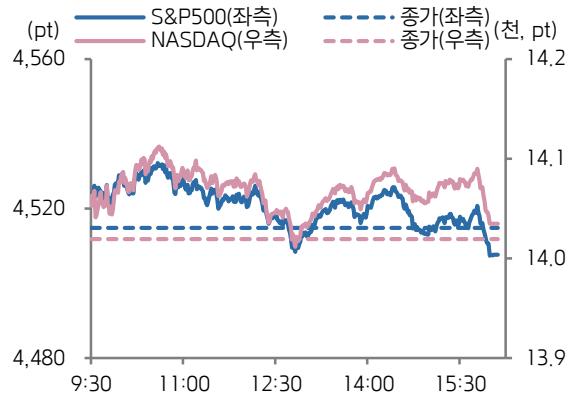
미국의 7 월 PCE 물가는 3.3%(YoY)으로 전월(3.0%)에 비해 상승했으나, 컨센(3.3%)에는 부합. 근원 PCE 물가도 4.2%(YoY)로 전월(4.1%)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컨센(4.2%)에는 부합하는 등 지난 7 월 CPI 에 이어 인프레이션 압력 자체는 이전에 비해 높아진 모습.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8 만건으로 전주(23.2 만건)에 비해 감소했으며, 컨센(23.5 만건)도 하회. 다만, CG&C 의 감원보고서 상으로는 기업들의 8 월 감원 계획이 7.5 만건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약 217%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도 267% 증가. 미국의 초대형 트럭업체인 엘로의 파산으로 인해 창고 업종에서 약 3.2 만건의 감원이 이루어졌다는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현재의 정책은 2% 물가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 또한 과도한 긴축으로 경제에 불필요한 고통을 가지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것이 이른 시일 내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

유로존의 7 월 소비자물가는 5.3%(YoY)로 전월(5.3%)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컨센(5.1%)는 상회. 코어 CPI 는 5.3%로 전월(5.3%) 및 컨센(5.3%)에 부합. 그 가운데 슈나벨 ECB 집행 이사는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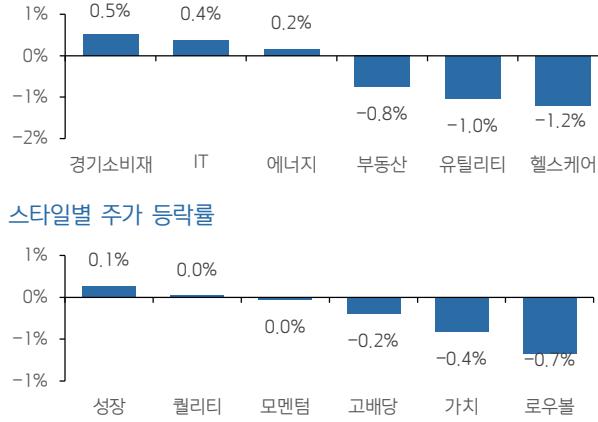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이후 양국간 의사 채널(연 1 회 이상 대면 회담, 수출입 통제 정보 교환 등)을 구축하여 경제와 무역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 또한 미국의 슈퍼 301 조를 통한 수출 통제, 반도체 정책, 상호 투자 제한, 차별적 보조금, 중국 기업 제재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56.27	-0.19%	USD/KRW	1,322.89	-0.04%
코스피 200	334.75	-0.06%	달러 지수	103.64	+0.47%
코스닥	928.40	+0.5%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483.08	+0.24%	USD/CNH	7.28	+0%
S&P500	4,507.66	-0.16%	USD/JPY	145.54	+0%
NASDAQ	14,034.97	+0.11%	채권시장		
다우	34,721.91	-0.48%	국고채 3년	3.717	-2.3bp
VIX	13.57	-2.23%	국고채 10년	3.825	-3.2bp
러셀 2000	1,899.68	-0.19%	미국 국채 2년	4.863	-2.3bp
필라. 반도체	3,670.93	+0.74%	미국 국채 10년	4.108	-0.6bp
다우 운송	15,725.20	-1.27%	미국 국채 30년	4.211	-1.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7.11	-0.42%	WTI	83.63	+2.45%
MSCI 전세계 지수	686.15	-0.25%	브렌트유	86.86	+1.16%
MSCI DM 지수	2,986.02	-0.18%	금	1965.9	-0.36%
MSCI EM 지수	980.33	-0.81%	은	24.47	-1.06%
MSCI 한국 ETF	62.45	-0.78%	구리	377.25	-0.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한국 8 월 수출입 지표에서 확인되는 수출 호조 품목
2.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앞둔 경계심리 유입
3. MSCI 리밸런싱 이후 외국인의 매매 패턴 급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 월 PCE 물가지수는 MOM 0.2%(예상 0.2%, 전월 0.2%), YOY 3.3%(예상 3.3%, 전월 3.0%), 근원 PCE 물가지수는 MOM 0.2%(예상 0.2%, 전월 0.2%), YOY 4.2%(예상 4.2%, 전월 4.1%) 기록하며 전월대비 상승. 기고효과, 유가 상승 등으로 8 월 지표까지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수 있음을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했고, 월간 상승률은 0%대에 그쳤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 9 월 금리 동결 가능성 역시 유지됨.

동시에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점증. 이날 나온 7 월 개인소비지출은 MOM 0.8% (예상 0.7%, 전월 0.6%), 실질개인소비 역시 0.6%(예상 0.5%, 전월 0.4%)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 고금리 환경에도 소비가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 그러나 한계기업의 파산 및 기업 감원은 8 월달에도 지속 (MOM 266.9%, 전월 -8.2%) 되고 있다는 점, 10 월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등 감안했을때 하반기 구인 감소 및 소비여력 감소를 지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1 일(목) 국내증시는 연준의 추가인상 기대 약화, 10 년물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출발했으나,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유입, 중국 8 월 제조업 PMI 부진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실망매물 출회되며 혼조세 마감 (KOSPI -0.19%, KOSDAQ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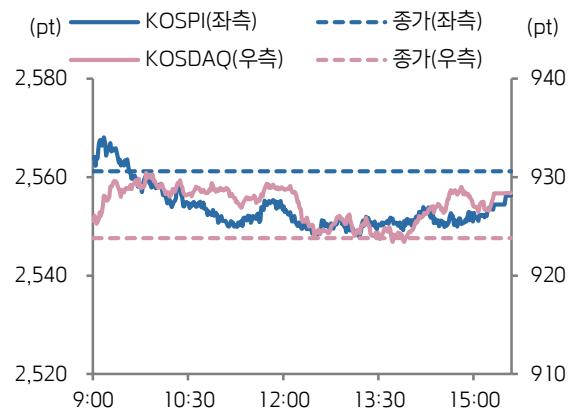
금일에는 한국 수출입 지표 결과에 주목하며 개별종목 장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20 주선(2,560pt) 회복 시도할 전망.

외국인은 에코프로 2,200 억원 순매수, 개인은 2,000 억원 순매도. MSCI 지수 편입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개인들의 차익실현 물량을 패시브 자금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 에코프로의 FTSE ET50, ET100 지수(5 월 31 일 발표, 6 월 12 일 종가 편입), MSCI 지수(8 월 11 일 발표, 8 월 31 일 종가 편입) 편입 이후 외국인은 현재까지 2 조원 매수. 9 월 초 FTSE 반기 리밸런싱 발표일 이후 패시브 이벤트는 소멸. 최근 5 년 내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순매수 상위 2 차전지 종목의 YTD 수익률을 양호하므로 개인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자극될 유인 존재. 다른 업종으로 수급 분산되는 흐름 9 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지수에는 긍정적일 것.

9 월에는 한국선물옵션 동시만기일, FOMC 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 모멘텀이 될수 있는 이벤트가 다수 있기 때문에 테마장세 지속될 것. 9 월 12 일 아이폰 출시, 두산로보틱스 9 월 11~15 일 수요예측, 10 월 초 상장 이슈,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 특히 전일 발표된 국내 7 월 산업생산 지표에서 제조업 재고는 MOM 1.6%, 반도체 재고 역시 4.0% 상승. 그러나 반도체 재고증가율은 YOY 로 상승폭 축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수출 지표에서 바닥 통과 시그널 확인 필요.

중국은 비구이위안의 채권 상환 연장 연기 및 신용등급 3 단계 강등 등 부동산 위기 여진 지속되는 가운데 지표 역시 부진. 제조업 PMI 는 49.7 (예상 49.2, 8 월 49.3)는 3 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하회, 비제조업 PMI 는 51.0 (예상 51.2, 8 월 51.5)은 3 월 고점 이후 하락 지속. 다만 생산지수 전월 50.2 → 51.9, 신규주문지수 46.3 → 46, 건설업 51.2 → 53.8 로 소폭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추가로 전일 발표된 7 월 국내 소매판매는 YOY 전월 1.5%에서 - 1.7%로 하락 전환함에 따라 내수소비 부진 역시 유통업종 하락 요인. 그러나 9 월 국경절 이후 중국인 인바운드 숫자 증가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면세, 백화점 등 유통내에서도 차별화 진행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